

태평양, 화장품사업 아모레퍼시픽으로 분사

태평양은 4월27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화장품사업 부문을 아모레퍼시픽으로 분사하는 기업분할 안건을 승인했으며 지주회사 관련 사업목적을 추가했다.

또 박환규 전 우리카드 감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한편 유태전 전 SK생명 사외이사를 신임 감사로 선임했다.

한편, 태평양은 2006년 1/4분기 당기순이익이 65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.3% 증가했다고 4월27일 공시했다. 2005년 4/4분기와 비교하면 384.7% 증가했다.

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.9% 증가해 3420억원, 영업이익은 0.2% 증가해 835억원을 기록했다. (서울=연합뉴스 윤선희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5/01>